

“지옥고 속 고군분투하는 인간 그렸죠”

이상문 작가 작품집 ‘아수라’ 펴내
나주 출신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선연 찾기’
인간에 대한 사랑 작품에 투영

불교 용어로 ‘아수라’ (阿修羅)라는 말이 있다. “육도 팔부중의 하나로 싸움을 일삼는 나쁜 귀신”을 일컫는다. 흔히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아귀다툼이 무시로 일어나는 세상을 뜻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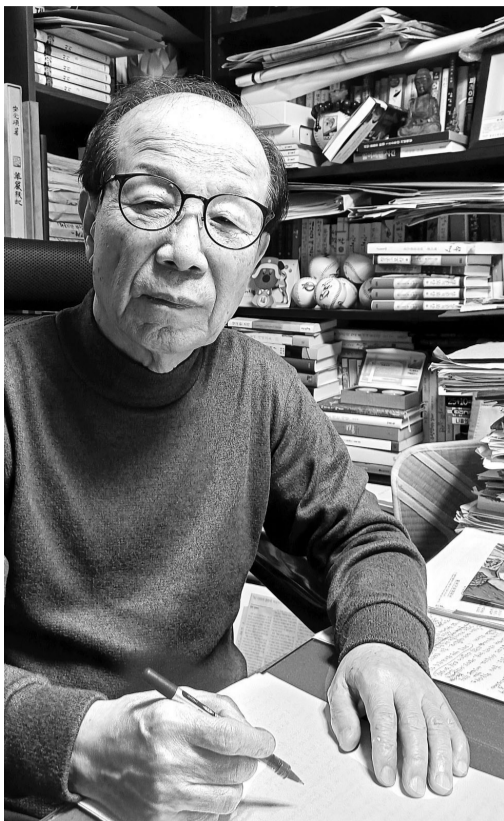
혹자는 오늘날의 세상을 ‘아수라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거의 모든 시대가 다툼과 파벌의 시대였다. 인류는 그 아수라와 같은 시간을 헤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문 작가는 최근 펴낸 소설에서 교만과 시기심으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벌이는 ‘아수라’의 판을 소설가적 시각으로 형상화했다. 중편소설 ‘아수라’를 비롯해 모두 6편의 중단편이 실린 작품집 ‘아수라’ (인복스)는 묵직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자는 최근 소설집 ‘아수라’를 펴낸 이 작가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나주 출신인 그는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문학상, 국제PEN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한국문학상, 영산강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수라란 교만심과 시기심으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벌이는 판이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판을 속으로 빠져들어 갈수록 혼탁해지면서, 인간성이 매몰된 사회, 그 결과로 돈과 권력만 쫓는 군상들을 볼 때, 저는 반세기 전에 들어가 있었던 미국의 전쟁판을 떠올렸습니다. 비움을 대는 나라가 따로 있는 전쟁의 막판(종전)에 벌어지는 아수라 지옥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간들을 그렸죠.”

동국대 재학 중 군 입대 후 ‘월남전’에 파병 (1970.3~1972.1)된 그는, 한국 언론 사상 최초 미수교국 ‘공산화 월남’ 특파 취재를 하기도 했다.



이상문 작가

그 결과물은 중앙 일간지에 게재됐으며 르포집으로 출간됐다.

이번 작품집은 사회 현실 속의 불만을, 불가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을 서사구조의 근간으로 삼았다. “세상만사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라는 말에서 소설들이 그리고 있는 세상사의 복잡단단한 면들이 가늠되었다. 이 작가는 “벌어진 세상사에서 그 원인과 조건을 기막히게 찾아내 ‘사람을 사람이게 하자’는 것이다”라며 “그것을 선연 찾기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선연 찾기’는 사랑이 아닐까 싶다. 이 작가는 평생 ‘인간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작품에 투영해왔다.

“이국의 전쟁터에 가 있었던 기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던 죽음의 냄새, 생명이 구차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오는 허무감, 거기서 비롯된 구원(救援)이라 할까? 바로 그런 사고가 매우 소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월남전 파병은 그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 작가의 삶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것이다. 그곳에서의 체험과 사유가 이후 창작을 하는데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나도 모르게 완고한 반전쟁주의자가, 확실한 인도주의자가 되어 버렸다”며 “더욱이 우리 민족 간 전쟁의 후유증을 소년기에 겪은 나이 대라서, 그 정도가 더했다”고 말했다.

그의 소설 단편작(1983년) 제목이 ‘사적인 실탄이 낸 흔적’이란 뜻 가진 ‘탄흔’(彈痕)이고,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읽어준 장편소설(1987년) 제목이 ‘그도 우리도 황인종’이라는 뜻의 ‘황색인’(黃色人)이고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간다. “나를 가리켜 ‘월남전’을 소재로 한 소설을 가장 많이 써낸 작가라고 하는데 다른 소설도 많이 썼다”며 “소설책이 42권에 달한다”고 그는 웃었다.

화제를 돌려 고향 나주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지금도 여름이면 동무들이랑 어울려 나가 강에서 어항들을 놓고, 봄 가을이면 강둑을 걸어 청량정으로, 고개들을 넘어 불회사로 소풍을 다녀온 일이 엇그제 같다”고 회고했다.

이 작가가 따르던 출생지는 나주군이지만 영암군과 경계였다. 민족간 전쟁기에 그 처절함을 직간접적으로 익힐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아울러 그의 작품 곳곳에 나주와 영산강의 자연 환경이 오롯이 투영돼 있을 거였다.

“중학교 때부터는 영산포읍에서 살았어요. 내륙에 부두가 있으면서 그 배경으로 큰 평야를 거느린 고장에서, 치열한 상업 현장과 여유로운 농업 현장을, 그리고 그사이를 흐르는 아흔아홉 구비의 영산강을 함께해온 나의 삶이었죠. 거기엔 나주읍의 선비적인 풍모와 정신을 넘보며 살아왔으니, 돌아보면 얼마나 행운인지 절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문학 입문 계기는 초등학교 5학년 특별활동 시간에 시를 쓰면서였다.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다. 중·고교에 입학하면서는 산문(소설)으로 바뀌 교내의 동인 활동과 함께 광주 시내 고교생들과 동인 활동을 했다.

“문학은, 소설은 내 생명이자 남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소설을 못 쓰게 되면 생명도 다할 것이지요.”

앞으로 계획을 물었더니 “이념 대립보다 인간적 유대와 보는 가치를 담아내는 작품을 쓸 것”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이 작가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비움에서 평화의 길로’ 인문학 산책

비움박물관, 3월까지 강연... ‘K-문화 원류의 힘’ 다각도 조명



비움박물관에서 전시했던 다양한 물동이와 시간장독.

〈비움박물관 제공〉

‘비움에서 평화의 길로’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지난해에 이어 ‘인문학 산책’을 진행한다. 1월부터 3월까지 펼쳐지는 이번 인문학 산책은 한국 문화의 원형과 K-문화 원류의 힘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월 강연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진옥섭 담양군문화재단 대표 이사가 ‘노름마치를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한다. 전통 연희와 예술가의 삶을 조명해 온 문화기획 전문가인 진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노름마치라 불리는 전통 예술 고수들의 삶과 정신을 들여다본다.

2월 강연은 조성환 원광대 철학과 교수가 ‘21세기 한국철학을 찾아서’ (27일 오후 7시)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기후인문학연구소 소장, ‘사상

계’ 편집주간을 맡고 있는 조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21세기 세계 속에서 한국 철학이 지니는 의미와 가능성, K문화의 사상적 뿌리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3월 강연은 전통문화의 가능성을 전하는 주제로 채워진다. 배일동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양가 이수자가 ‘한국인의 날과 씨’ (27일 오후 7시)를 주제로 판소리 독공과 득음의 과정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 세계로 확장되는 전통문화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한편 이영화 관장은 “우리 전통 예술과 문화에는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문화적 유전자가 내재돼 있다”며 “이러한 원형이 어떻게 세계로 확장되고 소통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국내 독립영화 92편 온라인서 즐겨요

인디그라운드, ‘3학년 2학기’ 등 다음 달 6~25일 순차 공개



영화 ‘3학년 2학기’ 스틸컷.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독립·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가 다음 달 6일부터 25일까지 엄선한 독립영화를 온라인에서 상영하는 기획전 ‘2025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스페셜 위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사업에 선정된 장편 23편, 단편 69편 등 총 92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서 올해의 배우상 등 4관왕을 차지한 ‘3학년 2학기’ (이관희 감독)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초청작인 단편 애니메이션 ‘안경’ (정유미)을 비롯해 ‘양양’ (양주연), ‘일과 날’ (박민수·안건형)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기획전은 플랫폼 ‘인디그라운드 온라인 상영관’에서 열리며, 인디그라운드 회원이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자연과 풍경·고향에 대한 단상...

조선희 시인, 70여편 시 엮은 ‘인생은 순례길’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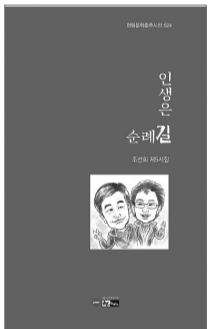
장성문인협회를 역임한 조선희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인생은 순례길’ (한림)을 펴냈다.

모두 70여 편의 시들은 자연과 풍경, 지난날의 추억, 고향에 대한 단상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조 시인은 ‘토방이 그리움’ 등 5권의 시집, ‘가랑잎 소리’ 등 4권의 시조집을 펴낸 바 있다. 이번 작품집에도 삶의 연륜이 느껴지는 사유, 대상에 대

한 애정, 감성이 투영된 시들이 수록돼 있다.

“역새풀 숨 멈춘/ 강가에 가면/ 바람들이/ 심심타 투정을 하고// 강물에 물병아리 떼/ 호로롱 호로롱/ 호루라기 소리를 내며/ 바람을 달래고 있다...”

위 시 ‘겨울 강가에 가면’은 눈앞에 펼쳐진 겨울 강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상이 정갈한 언어로 표현



돼 있다. ‘겨울 강’은 자연적이며 물리적인 강이기도 하지만 70이 넘는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만년의 강’이기도 하다.

담담하게 겨울 강가를 바라보는 화자의 눈은 강가 너머의 세계를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편으로 오늘의 시간에 감사하며 다시 다가올 ‘봄’을 회상하고 있는 것도 같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